

「페넬로피」: 여성 섹슈얼리티의 탈식민주의적 재현

김 문 숙

1. 들어가는 말

앞선 열일곱 개의 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거부당해 온 몰리 블룸(Molly Bloom)은 “일종의 에필로그”(Pearce 3)로 기능하는 「페넬로피」(“Penelope”) 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금껏 그녀를 ‘억압’해 왔던 남성의 시선과 언어를 하나씩 해체해 간다. “자신의 목소리로 오랫동안 생각하도록 허락된 최초의 여성”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심과 관점에서 벗어나 이 독립된 장”(Pearce 46)을 이끌어 가는 몰리는 앞서 등장한 여러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가부장적 문화에 호명되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인물”이기도 하다(Duffy 185). 또한 그녀는 텍스트의 허구적 경계까지 넘나들면서 자신을 창조한 작가와의 논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듯 양극을 넘나드는 경계에서 몰리가 제시하는 “필수 불가결한 압호”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내면독백이 아니라 양극을 동시에 포용하고 분열시키며 허구적 세계의 경계를 흘러 넘치는, 말하자면 들뢰즈·가타리(Deleuze · Gattari)의 리좀(rhizome)의 형식으로(Valente 238) 형상화된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집필 활동은 아일랜드의 민족문예부흥 운동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그는 오랜 식민경험에서 비롯된 상실된 민족혼을 되찾으려는

그 정치적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했던 반면, 그것의 지나친 이상주의와 시대착오적인 복고주의에 대해서는 결코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래서 「성직」(“The Holy Office”)이라는 글에서 조이스는 식민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들의 이상주의에 대한 반대자(counter)로서 천명한 바 있고¹⁾, 「소요의 날」(“The Day of Rabblement”)에서는 아일랜드 문예극장(Irish Literary Theater)이 민족주의의 “물질숭배 및 교묘한 자기기만”을 추종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CW 71).

민족문예부흥 운동에 대한 그의 이러한 정치적 비판의식은 그들이 민족의 상징으로 추앙하던 성모(聖母)의 이미지에 반(反)하는 인물들을 작품 내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수태고지(the Immaculate Conception)가 표방하는 무성적(asexual)이고 희생적인 성모와는 상반된 물리를 『율리시즈』(*Ulysses*)의 결말을 맺는 주인공으로 설정한 사실은 바로 그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물리는 식민 이전의 순수한 상태로의 복귀를 열망하는 이 낭만적이고 퇴영적인 민족주의 성모 담론을 해체하려는 조이스의 서사적 책략으로 보인다. 조이스는 물리의 생일을 성모와 동일한 9월 8일로 설정하여²⁾ 성모와의 연관성을 교묘하게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를 다시 보일런과의 ‘불순’한 정사 등 그녀의 ‘파격적인’ 섹슈얼리티와 병치하면서 ‘순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의 성모 담론을 정면으로 공격한다.

조이스의 부단한 언어 실험 역시 정치성을 함의한다. 그의 다양한 언어는 하나의 절대 언어를 고집하는 세계, 즉 사회의 억압 구조를 권위적인 하나의 목소리로 은폐하고 언어들 간의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소하려는 기존 체제의 독단성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혁명적인’ 문체의 혁신은 사회 전반에 담긴 문화적/인습적 규범의 허위성을 드러내 보여주려는 일종의 ‘텍스트의 실천’으로서 “정치혁명의 실천이 사회 내에 도입하는 것을 주체 내로 끌어들이고자 한다.”(Kristeva 17) 조이스는 「이올루스」(“Aeolus”) 장의 공적담화의 문체에서 시작하여 「사이클롭스」(“Cyclops”) 장의 법률문서의 문체, 그리고 「이터커」

1) James Joyce,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London: Faber & Faber, 1975), 151. 앞으로의 모든 인용은 이 판을 기준으로 하며, CW란 약자와 함께 괄호 안에 쪽수만 기입하겠음.

2) James Joyce, *Ulysses*, Hans Walter Gabler et al eds.(Harmondsworth: Penguin, 1993), 17.2275-76. 앞으로의 모든 텍스트 인용은 이 판을 기준으로 하며 U란 약자와 함께 장과 줄 수만 괄호 안에 기입하겠음.

(“Ithaca”) 장의 교리문답의 문제 등의 실험을 통해 제도권 언어가 갖는 권위의 허구성과 그것이 주입하려는 경직된 질서에 대해 부단히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언어 실험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불연속적인 기호적 리듬에 담아내는 물리의 내면독백의 언어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물리는 이렇듯 사회가 불허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자신만의 언어로 토로하면서 남성 중심적 담론의 고정된 의미를 흔들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억압되었던 것들을 노출시키는 일종의 “생산적 폭력”(productive violence)을 행사한다.

당시 아일랜드의 여성 운동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의 거대 담론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 1913년의 자치권(the Home Rule) 논의 당시만 해도 아일랜드 여성의 참정권 문제는 논외로 제외되었고, 1916년의 부활절 봉기시 패드라익 피어스(Padraic Pearse)가 「공화국 선포문」(Republican Proclamation)에서 제기했던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시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1922년에 가서야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성취된다(Shloss 113). 즉, 여권 신장을 위한 이 모든 과정은 1904년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물리 이후의 일임을 숙지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극도로 위축된 당시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물리가 내면 독백으로 풀어내는 의식의 흐름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여성의 현실, 더 나아가 식민지적 상황이 초래된 원인 및 그 극복의 가능성을 읽어내고자 한다. 『율리시즈』(Ulysses)의 집필기간(1914-22)이 독립전쟁 기간(1916-22)과 거의 맞물려 있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텍스트에 각인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이스에게 『율리시즈』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민지의 식민행정에 대한 준엄한 기소장”(Duffy 190)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랜 식민경험에서 비롯된 동족의 하위주체(subaltern) 의식 및 그 극복 방향에 대한 조이스의 인식을 물리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을 보태자면 탈식민화 과정에 대한 조이스의 생각의 일단을 불연속의 기호적 리듬의 언어로 표출된 물리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물리는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가장 억압된 하위 계층으로서 종속의 상황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표현하는 여성이다. 조이스는 이러한 물리를 『율리시즈』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마지막 주자로 등장시키면서 진정한 탈식민, 즉 독립은 반동적 이데올로기로의 낭만적 귀환이 아니라 식민현실의

공적/ 사적인 억압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Duffy 187)을 암시한다. 『율리시즈』는 “식민 권력이 낳은 결과물들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펼쳐 보일 뿐만 아니라 물리의 사고를 통해 이 굴욕의 상태에서부터 “독자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Duffy 191). 「페넬로피」장을 “영원으로 가려는 블룸의 여권에 필수 불가결한 암호”³⁾로 소개한 조이스의 ‘암호’같은 설명에 필시 “인간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든”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암호’도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2. 경계에 걸친 존재

지배와 종속의 인간관계는 ‘우리’를 ‘그들’과 구분하는 경계선을 근간으로 존속한다. 이때 경계선의 양쪽에는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종, 그리고 기독교도와 이교도 등 무수히 많은 추상적 개념들이 위계적으로 포진하게 된다. 그렇다면 주어진 어느 한 영역을 넘어서서 양쪽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거나 혹은 어느 한 쪽에도 온전히 귀속될 수 없는 존재들의 ‘미결정성’(indeterminacy)은 그 자체로 기존 체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리에게서 감지되는 모종의 체제 저항적인 힘 역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엄격한 경계를 흐려놓는”(Duffy 182), 즉 지배 주체의 공간적 동질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녀의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리의 모호한 속성은 이처럼 호미 바바(Homi Bhabha)의 표현대로 혼종성(hybridity)이 지닌 체제 전복적인 힘을 지닌다. 물리는 성과 인종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엄격한 위계를 무시하고 지배자의 공간을 끊임없이 침범하면서 지배/ 종속의 근거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의하면 상징계 질서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립”(the *thetic*)은 “거울 단계”에서 시작되며, 그 어떤 “의미 실천”도 정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정립”에 선행하는 “기호적 코라”가 끊임없이 “정립”을 깨뜨리고 “의미 실천”

3) James Joyce,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London: Faber & Faber, 1975), 278. 앞으로의 인용은 이 판을 기준으로 하며 SL이란 약자와 함께 괄호 안에 쪽 수만 기입하겠음.

에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창조”이며 특히 “시적 언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요컨대 “상징계 질서를 개혁하는 것은 기호계의 쇄도”라는 것이다 (Kristeva 62). 따라서 인위적인 지배체제의 이항대립구조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고정된 위치를 거부하는 물리는 상징계 질서와 기호계적 충동이 작용하는 경계에서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주체”(Kristeva 37)이며, “기호적 코라”의 발현인 그녀의 시적 언어는 상징계 질서에 변형을 야기할 수 있는 혁명의 가능성을 보유한다. 기존의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체제가 고정되고 초월적인 기표, 남성 중심의 독단적인 확신에 근거하여 성적/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휘, 리듬, 통사적인 면의 오류 등으로 표출되는 물리의 기호적 충동은 기존 언어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미를 ‘불안’하게 하며 그 속에 억압되어 있던 다양한 욕망들을 노출시키게 된다.

우선 물리는 인종적·문화적 경계인이다. 그녀는 아일랜드인인 아버지 브라이언 트위디(Brian Tweedy) 소령과 스페인계 유대인 여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어머니 루니타 라레도(Lunita Laredo)의 외동딸로 1870년 9월 8일(U 17.2275-76) 영국의 식민지였던 지브롤터에서 출생한다. 텍스트에서 거의 언급이 없는 어머니 대신 물리는 “은빛 옷을 입은 검은 머리의 성모”(U 18.759) 라는 구절로 추측컨대, 스페인 여성이면서 이교도인 듯한 루비오 부인(Mrs Rubio)에 의해 양육된다. 이렇듯 물리는 아일랜드인, 유대인, 그리고 스페인인 등 다양한 인종의 문화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블룸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10분 동안 서로 뻘뻘 쳐다보고 서 있을”(U 18.1183) 만큼 물리에게 매혹된 이유도 어느 한 가지 문화적 코드에 얽매이지 않은 그녀의 이국적이고 다양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젊은 유대인 여성으로서 병약한 어머니를 보살피는 자신의 모습이 블룸에게 호감을 주었을 거라고(U 18.1184) 상상하는 이후의 물리의 의식을 통해 밝혀진다.

블룸이 모성적 본능과 섹슈얼리티를 겸비한 물리의 이국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은 모성을 이상화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체계적으로 억압하려는 당시의 가부장제 사회와 연관시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맥클린톡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 양상을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모성을 찬양함으로써 제국 건설에 필요한 남성적인 민족을 길러내는 것이 남성적 제국의 건강과 부를 다스리

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McClintock 47). 여성의 섹슈얼리티 또는 성적 희열을 가부장제, 더 나아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로 파악하는 사회는 희생적인 모성 담론의 도덕적 가치를 은밀하게 유포시켜 섹슈얼리티를 억압한데 대한 일종의 ‘보상’을 제공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체계적으로 차단한다. 더구나 디지(Deasy) 교장과 시민(The Citizen)의 여성 비하적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과도한 노출을 자국의 식민화의 원인으로 파악해 온 아일랜드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억압은 ‘자연스러운 처사’였고 그래서 더욱 노골적이었다.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아일랜드의 여성 억압의 역사는 1152년 더보길라(Dervorgilla)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인 맥머로우(Dermot MacMurrough)가 그녀의 남편인 오르크(O'Rourke)에 의해 추방된 뒤 영국 왕 헨리 2세(Henry II)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史實)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더보길라도 (남성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Haslett 47), 외세를 불러들인 당사자 역시 자신의 ‘무능함’을 외부의 힘을 빌려 만회하려고 했던 맥머로우, 즉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조이스의 동시대인들조차도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을 실각시켜 민족의 독립 가능성을 무산시킨 장본인 역시 ‘한 여성,’ 즉 오셰이(Kitty O'Shea)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여성의 이 ‘부정적인’ 섹슈얼리티를 내면 독백의 형식으로 거침없이 토로하면서 당시의 지배적인 성담론을 위반한다. 조이스는 물처럼 막힘 없이 흘러가는 언어에 물리의 억제되지 않은 섹슈얼리티를 담아내면서, 성모 담론이 표방해 온 순종, 정숙, 그리고 희생 등의 ‘무성적’이고 ‘여성다운’ 덕목들과 충돌시킨다. 지배담론에 함몰되지 않는 물리의 이러한 모습은 “여성의 보다 높은 임무”(womans higher functions)라는 ‘권위적 담론’을 유포했던 교회의 “늙은 주교”에게 “하느님이 지각(知覺)을 주시길” 기원하며 “바보”로 조롱하는(U 18.837-40) 그녀의 태도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지금까지 『율리시스』에는 교회가 ‘당연하게’ 누려온 권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는 신부들이 대거 등장해 왔다. 그 중 「배회하는 바위들」(“Wandering Rocks”)의 늘 ‘상쾌’한 콘미(Conmee) 신부는 마침 시대를 행진 중인 더들리 총독(William Humble, Earl of Dudley 아일랜드의 총독이자 보수당 당원 1899-1932)과 더블린을 양 방향으로 가로질러 가면서, 아일랜드를 짓누르는 종교와 정치의 양대 억압의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이 성사시킨 귀족과 귀족(noble to noble)간의 결혼을 ‘흐뭇하게’ 떠올리고, 시종 “미소” 띤 얼굴로 지나치는 ‘순경’과 친밀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 또한 제국과 귀족에 편향된 그의 계급의식을 노출시킨다. 오몬드(Ormond) 술집에서 술에 젖어있는 카울리 신부(Bob Cowley)는 성공회 목사인 영국인 러브 사제(Hugh C. Love)에게 밀린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을 차압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의 이러한 무능함은 곧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제적 주종 관계를 암시한다. 디그넬의 장례 의식을 주관한 코피(Coffey) 신부 역시 그 이름에서 유추되듯(coffin) 인간의 영적 소생이라는 종교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한 인물됨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자인 코리건(Corrigan) 신부에 이르러 몰리의 “손을 만지작거리는 걸 싫어하지 않는 듯한”, “그의 땀에 젖은 축축한 손”(U 18.113-15)이 그녀의 빈축을 사면서, 앞선 모든 신부들에 대한 해체도 동시에 수행된다. 남녀의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코리건 신부의 속세적 호기심과 이에서 암시되는 그의 강한 성적 본능은 그 실체를 꿰뚫고 있는 몰리에 의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표’의 허구적 권위와 실천의 괴리가 낱알이 공개되면서 희극적 이완(comic relief)의 효과도 연출한다. 「페넬로피」의 코미디는 이렇듯 권력자들의 말과 행동을 순진하게 전복시켜 버리는(Duffy 187) 몰리를 통해 유발된다.

하지만 섹슈얼리티를 강조한다고 해서 몰리에게 모성적 성향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보일런과의 정사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도 “날 [몰리] 임신시킬 수도 없었던”(U 18.1123) 보일런보다는 원기(spunk)가 많은 불륜을 더 좋아한다(U 18.168)는 심경을 토로하면서, 성적 회열, 즉 리비도와 모성이 조화될 수 있는 여지를 암시한다. 스티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그의 “애인 그리고 공공연한 정부(情夫)”가 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지만(U 18.1350-67), 동시에 돌아가신 “그의 불쌍한 어머니”를 떠올리면서(U 18.1455-57) 그를 향한 모성적 보호 본능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그녀는 “내가 [몰리] 울면서 짖 그 조그마한 털 재킷을 입혀 장사지낸” 11년 전에 죽은 아들 루디(Rudy)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애끓는 감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딸 밀리(Milly)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도(U 18.1076-77), 그리고 “그 아이 [밀리]에게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기면 의논하는 사람”도 결국 어머니인 자신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한다. 이로써 보전대 몰리가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모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성(性)을 제거한 성(聖)스러운 여성을 유일한 여성성으로 상정하려는 민족주의 및 교회의 성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몰리는 자신의 모습이 침대 위에 걸려있는 액자 속의 요정과 닮았으며 또한 사진 속의 추잡한 매음녀와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은 그녀가 ‘성녀’와 ‘창녀’라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이분법적 전형의 경계에 위치한 존재이며, ‘경계’에 내포된 ‘힘’으로 사회의 성담론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몰리는 가부장제가 양분한 여성의 전형을 통합하는 이미지를 체현함으로써, 남성중심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담론과는 구별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조화로운 체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방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온 더보길라와 회생적인 모성을 대변하는 캐슬린, 즉 창녀와 성녀를 통합하는 몰리의 이러한 이미지는 조이스의 여러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미결정성’이 극대화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이방인’ 대신 “아일랜드의 철저한 민족주의자”(P 202) 데이빈을 유혹했던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부여자(P 181)나, 또는 「사이클롭스」장에서 “젊고 잘 생긴 옥스퍼드 출신”인 ‘영국인’의 구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일랜드인’ 사형수 애국지사의 ‘비탄에 빠진’ 애인 셸리아(Shelia)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여성이 보여주는 예측불허의 ‘미결정성’은 가부장제 사회가 ‘결정’한 그들의 고정된 정체성, 즉 “구성된 여성성의 이념적 담론”에 도전하는(Haslett 51) 저항의 한 형식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 즉 이분법의 경계에 걸쳐있는 몰리를 표현해 주는 여러 ‘자연스럽다’에 해당되는 수식어구들은 인간 제도의 인위성 및 경직성을 부각시키려는 조이스의 의도로 보인다. 블룸(Leopold Bloom) 역시 이름(Bloom)과 스스로 부여한 헨리 플라워(Henry Flower)라는 가명이 보여주듯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데, 조이스는 이처럼 자연을 따르는 블룸, 그리고 자연을 닮은 몰리의 성정을 자연을 거스르는 인간 제도 및 관계와 병치시키면서 후자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듯 하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존속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현 체제의 경직된 위계질서라고 할 때, 몰리가 위치한 이 둘 사이의 경계야말로 양쪽을 넘나들면서 전복과 타협을 거듭하는 해방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온갖 차이들이 충돌을 거쳐 조화를 지향해 가는 열린 공간인 것이다.

3. 탈식민 사회의 이미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부장적 민족주의가 설정한 ‘여성성’의 경계에서 벗어나 ‘순수’를 상실한 물리의 모습은 그 자체로 식민역사가 낳은 “전반적인 식민지 하위 계급의 기표”(Duffy 84)라 할 수 있다. 조이스는 식민역사의 상흔을 체현하고 있는 ‘오염’된 물리를 통해 ‘순수’했던 과거로의 복귀를 꿈꾸는 민족주의의 비현실성을 지적한다. 탈식민은 제국의 헤게모니 체제와 이를 전복하려는 주변부간의 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융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 이전 상태의 문화적 순수성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Bill Ashcroft 195-196). 따라서 물리의 ‘오염’된 모습이야말로 탈식민을 준비하는 식민 주체의 현실적인 가늠태라 할 수 있다. 탈식민성이 이렇듯 양쪽 세계의 교차의 산물이고 그래서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 양쪽 세계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두 세계 모두를 아우르는 물리의 모습은 식민지 여성, 더 나아가 식민지인의 모호하고 상충된 심리와 탈식민에 요구되는 융합적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물리의 출생지를 지브롤터(Gibraltar)로 설정한 조이스의 의도에서도 이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영국의 식민지로서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가 혼재되어 있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여러 겹으로 얹혀 지배와 종속의 중층구조를 이루는, 말하자면 “현대의 식민지적 상황”을 제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브롤터는 물리를 보다 넓은 “식민지 무대”에 올려놓기 때문이다(Bazargan 120).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을 지닌 물리와 불륨의 향후 예상되는 관계로부터 어떤 형태의 탈식민 사회의 이미지가 추론될 수 있을까? 사실 불륨은 많은 점에서 물리와 공통적인 성향을 지닌다. 『사이클롭스』장에 피력된 “사는 것이 곧 사랑”(U 12.1481-85)이라는 불륨의 인생관은 “사랑이란 당신의 온 하루를 채워주는 것”(U 18.738)이라는 물리의 사랑 예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그는 “삶이란 매순간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U 18.738-39)이라는 물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다양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호우쓰 언덕에서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을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물리와 일치한다. 물리를 꽃에 비유했던 불륨의 이름 역시 ‘꽃을 피운다’는 의미(bloom)이며 스스로를 꽃에 비유한다는 점(a languid flower)(U 6.571-72)에서도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둘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엇비슷한 평가를 내린다. 가령 몰리는 「죽은 사람들」(“The Dead”)에서 교만한 성악가로 등장했던 바텔 다시(Bartell D’Arcy)를 “강퓔 두드리는 목소리”(all his tinny voice)(U 18.276)로 기억하면서 그의 허황된 공명심을 비유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우쭐대는 인간”(U 8.182)이라는 그에 대한 블룸의 평가와 맞닿아 있다. 또한 몰리는 보일란에게서 언뜻 “완벽한 악마”(a perfect devil)(U 18.423)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 역시 “더블린에서 가장 나쁜 사람”(worst man in Dublin)(U 6.203)이라는 보일란에 대한 블룸의 평가를 반복하는 것이다. 시간성을 중시하는 블룸과 공간성에 밀착된 몰리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의 가능성 역시 블룸과 몰리가 일구어 낸 조화로운 관계의 비전을 암시한다.

또한 과거보다는 현재의 삶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도 몰리와 블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몰리는 결코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망각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열하루 만에 아들 루디를 땅에 묻어야 했던,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 버린”(U 18.1450) 쓰라린 과거를 안고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우울해지고 싶지는 않다”(U 18.1450-51)거나 “슬퍼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U 18.1307-8)며 현재의 삶에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양상을 거부한다. 또한 그녀는 직접 “울면서 짝 그 조그마한 털 재킷으로 그 애[루디]를 장사지내지 말 것을 그랬어 그걸 어떤 가없는 애에게 주는 게 나았을 걸”(U 18.1448-49)이라며 과거보다는 현재를, 죽음보다는 삶을 지향하는 현실감각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그녀의 ‘여기 그리고 지금’(here and now)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는 「사이렌」장의 오몬드 술집에서 ‘영광스러운’ 과거의 향수로 현재의 ‘치욕적인’ 식민지적 상황을 은폐하거나 또는 그들이 부르는 ‘까까머리 소년’(The Croppy Boy)이라는 노래가 말해 주듯 숙명론적 패배의식에 젖어 현재의 비참한 삶을 초래한 원인의 파악 및 그 극복에의 노력은 포기해 버리는 더블린의 못 남성들과 대비될 뿐더러 유일하게 그러한 분위기에 빠져들지 않는 블룸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면을 보여준다.

「페넬로피」 이전까지의 몰리에 대한 더블린 남성들의 평가는 소위 ‘정신’능력에 부족하지만 성적 대상으로서의 ‘육체’적 매력은 충분한 여성으로 종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맷 딜론(Mat Dillons)에서 몰리와 춤을 추었던 헨리 멘튼(Henry Menton)은 그녀가 잘 생겼으며(a finelooking woman) 안으면 한 팔 가득(a good armful)이었다고 회상(U 6.696-67)하는가 하면, 노우지 플린(Nosey Flynn)도 그녀

의 양호한 영양 섭취 상태(well nourished)를(U 8.952) 운운하며 풍만한 몸매를 강조한다. 레너헌은 멋진 가슴과 암말처럼 탄력있는 몸매로 물리를 떠올리며(U 10.566-67), 「사이클롭스」장의 화자(話者)도 그녀의 육체적인 몸매를 언급한다. 「태양신의 황소들」에서 산부인과 병동을 가득 채운 술 취한 남성들의 음담패설 중에도 성적 대상으로서 물리가 지닌 육체적 매력은 간간이 새어나온다. 물리의 지적 능력의 결핍은 「칼립소」장에서 불륨에게 윤회(metempsychosis)의 의미를 물어보는 물리와 그의 답변에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줄 수 없느냐는 그녀의 반응으로 처음 암시된다. 물리의 “불완전한 정신 발육”(deficient mental development)(U 17.674)에 대한 이 은연한 암시는 불륨의 ‘개선’ 시도가 소개된 「이터커」장에서 확인의 과정을 거치며 기정사실화 되기에 이른다.

그는 비교적인 무지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가?

다방면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특정한 책의 특정한 페이지를 펼쳐 둠으로써: 설명적으로 언급할 때, 잠재적 지식의 존재를 그녀에게 가상케 함으로써: 그녀의 면전에서 현장에 없는 다른 사람의 무식한 실수를 공공연하게 조소함으로써.(U 17.693-97).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이 지배하는 앞선 열일곱 개의 장에서 물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칼립소」장과 마지막 「이터커」장 모두 그녀의 “불완전한 정신 발육”을, 그리고 이를 상쇄하려는 듯 그녀의 ‘육체’적 매력에 대한 남성들의 일률적인 ‘찬사’로 그 간극을 채웠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그녀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이 원망(願望)하는 여성의 전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과는 달리 단지 풍만한 ‘육체’에 불과한 물리가 「페넬로피」장에서 수행하는 소위 남성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평가는 무릇 그들의 진수를 꿰뚫는, 불륨의 표현처럼 “바늘처럼 예리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녀는 불륨이 자신과 보일런과의 관계를 방조하는 것은 필시 불륨 자신이 직접 저지러 수 없는 부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함이며(U 18.1253-54), 딸 밀리를 갑자기 멀린거(Mullingar)로 보낸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헨리 멘튼은 “말만 무성한” ‘얼간이’이며(U 18.42-3), 「두 건달」(“Two Gallants”)의 레너헌은 “기생충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거짓을 다 넣으려면 호주머니가 스무 개는 있어도 모자랄 지경인”(U 18.1236-37) 남성들의 행태에 대한 물리의 정확

한 판단은 “노상 술집 구석에 박혀 아내 또는 자식을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U 18.1280) 디그넵이 죽은 후 그의 장례식에 모여든 면면들에 대한 다음의 평가에서 정점에 달한다.

모두들 그것을 우정이랍시고 서로 죽이며 매장하면서도 말이야 (...) 이제 다시는 내 남편을 자기들 패에다 끌어넣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마음만 내키면 그의 등뒤에서 그이를 옷음거리로 만들고 있지요 나는 잘 알아요 (...) 그이는 자기가 번 돈을 모두 마셔 없애 버릴 정도로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니거니와 자기 처자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지(U 18.1270-79)

이렇듯 물리는 자신을 ‘육체’에 한정하려는 더블린 남성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그들의 빈약한 ‘정신’의 위선과 가식을 꿰뚫는 혜안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녀는 이들 ‘마비’된 부류와의 차별성, 즉 블룸의 “아일랜드인 같지 않은”(not Irish enough)(U 18.379) 성실한 태도가 오히려 그를 주변으로 몰아가는 주 요인이라는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물리가 블룸을 좋아하게 된 것도 전횡을 일삼는 이들 대부분의 남성들과는 달리 그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유일한 남성”(U 18.1578-79)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블룸은 여성의 현실,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소외의 상황을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여성과의 진정한 관계를 모색하려는 “아일랜드인 같지 않은” ‘드문’ 남성인 것이다.

하지만 블룸 역시 인간적으로 나약하기도 하고, 십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아내와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말해 주듯 더블린의 마비적 기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블룸은 물리의 부정이 “아마도 내 잘못된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지닌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민족의 식민 역사의 원인을 한 부정한 여인에게서 찾으려는, 블룸의 말을 빌자면 “내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여타 부류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책임의식은 그 상황을 타개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를 조국의 식민지 현실에 빗대어 본다면 제국의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스티븐이 강조했던 민족의 “양심을 버린다는 것”은 필시 민족 구성원 각자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터커」장에서 물리의 불륜에 대한 블룸의 최종적인 태도가 부러움(envy)이나 시샘(jalousy)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체념 또는 자제(abnegation) 및 평정(equanimity)의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래서 마비 상황에서 깨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싹을 암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아내의 부정이라는 기왕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자세일 뿐더러 그 현실을 초래한 원인을 상대방보다는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즉 스스로의 과오를 돌이켜 보고 자성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룸의 태도는 몰리로 하여금 “그이 [블룸] 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U 18.1497-98),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가야겠다(U 18.1598-1500)고 다짐하게 하면서 호우쓰 언덕에서의 그 완벽했던 결합의 또 다른 가능성을 예감케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몰리의 “yes”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확신이며(Boone 218), 여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 남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려는 포용의 “yes”로 파악될 수 있다.

「사이클롭스」장의 시민이 대변하듯이 아일랜드의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은 “남성적인 힘과 위용”(U 12.911)을 강조하며 켈트 민족의 ‘순수’했던 과거로의 복귀를 지향해 왔다. 그들이 주장하는 탈식민의 청사진에는 이렇듯 남성/여성, 자민족/타민족의 위계적 이분법이 그대로 상존한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탈식민 상태가 식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피식민자(the colonized)에 대한 사이드(Edward W. Said)의 정의로 설명될 수 있다. 사이드에 의하면 ‘피식민자’는 “여성, 억압받고 있는 하층민, 소수 인종, 주변으로 밀려난 학문의 세부 분야까지로”(Said 207) 그 의미가 확대된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차이를 은폐하고 하나의 민족 정체성만을 강요하는 민족주의는 오히려 탈식민화를 방해한다.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충하는 목소리들이 한데 모여 다성적 화음을 낼 수 있는 여건, 요컨대 다수의 차이들이 어우러져 융합적이며 복수적인 정체성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민족 주체 각자의 열린 사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블룸이 스티븐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경우를 상상하며 “꽃을 꺾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며 자신은 “장미를 달고” “린턴 가게의 저 예쁜 케이크”(U 18.1549-54)를 준비해야겠다는 몰리의 모습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블룸과 스티븐을 억압하고 있던 난제(難題)들이 몰리와의 만남을 통해 해결될 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블룸이 자식을 절실히 원하면서도 몰리와의 관계를 피하고 있다면, 스티븐은 이 세상을 예술로 창조하

고픈 열망으로 가득하지만 정작 그 세상과의 직접 대면은 회피한다. 결국, 조이스의 작품 세계를 구성하는 이 두 남성 주인공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좌절의 원인은 여성 또는 여성처럼 유동적인 변화로 점철된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크림빛 향기가 나는 수박”에 대한 무의식의 꿈을 공유한 이 두 남성인물과 “크림빛 향기가 나는 수박” 그 자체인 몰리와의 만남에서 예상되는 화합의 조짐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이 세 사람이 연주해 낼 조화로운 화음도 기대하게 만든다.

4. 맺는 말

“Dark Rosaleen”이나 “Little Black Rose” 등의 예에서 드러나듯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장미에 비유되어 왔다. 따라서 “장미”로 자신을 꾸미고 “사방을 온통 장미로 물결치듯 만들고 싶어하며”(U 18.1558) “홍분하면 장미처럼”(U 18.651) 변하는 몰리는 아일랜드의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몰리는 보일런과의 정사를 비롯하여 과거의 남자인 멀비와 가드너를 기억하고 있는 여성이다. 몰리는 불룸과 결합하는 순간에도 자기만의 기억, 이를테면 멀비나 스텐호프 부인 그리고 불룸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낡은 침대의 기원(U 18.1213)까지 “그이 [불룸] 가 알지 못하는 별의별 걸”(U 18.1582) 떠올린다. 이는 이후 불룸과의 새로운 결합에 대한 예감이 아일랜드의 정체성 회복, 환언하면 독립의 쟁취까지도 암시하는 것이겠지만, 이때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결코 과거로의 복귀도 어느 하나의 특권화된 정체성의 확립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불룸과의 새로운 관계의 모색으로 암시된 민족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은 성모의 이미지에 근거한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보수적 논리와는 다른 것이다. 결국 몰리가 보여주듯 식민지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각 주체들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어떤 특정한 잣대의 권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룸의 표현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U 8.662; 13.1058) 관점의 다양화, 이것이 야말로 조이스가 제안한 진정한 탈식민화의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터커』장의 불룸과 스티븐의 만남 역시 ‘차이들’의 만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룸은 과학적인데 반해 스티븐은 예술적이고(U

17.560), 이들의 이름, 나이, 민족 그리고 믿음(creed)까지도 서로 상이하다(U 17.402-3).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이미 그 속에 ‘유사성,’ ‘차이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 등을 감추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차이들,” “대안,” “접촉 지점,” 그리고 “연결 고리”(U 17.893, 960, 745, 478) 등의 단어를 통해 암시된다. 「프로테우스」 (“Proteus”)장은 “샌디 마운트 해안을 따라 영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스티븐과 함께 아직 등장하지 않은 블룸과 몰리의 소개도 내밀하게 텍스트에 끼워 넣는데(U 3.367-69, 3.502), 이는 이들 세 사람이 스티븐이 향후 완성하려는 ‘민족의 대 서사시’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구성원임을 암시한다. 결국, 개인 역사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들이 모여 조화를 지향해 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자에게 정체성의 소멸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즉 ‘상호공존’에 근거한 자아와 민족의 해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민족의 새로운 정립과 그 민족의 “정신적 해방”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명지대)

인용 문헌

- 들뢰즈 · 가타리. 『소수 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조한경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 크리스테바, 줄리아. 『시적 언어의 혁명』. 김인환 역. 서울: 동문선, 2000.
- Ashcroft, Bill *et al.*, *The Empire Writes Back*. London: Routledge, 1994.
- Bazargan, Susan. "Mapping Gibraltar: Colonialism, Time and Narrative in 'Penelope'." In Pearce, 119-138.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Boone, Joseph A. "Staging Sexuality: Repression, Representation, and 'Interior' States in *Ulysses*." Joyce: *The Return of the Repressed*. Ed. Susan Stanford Friedm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190-221.
- Castle, Gregory. "Ousted Possibilities: Critical Histories in James Joyce's *Ulysses*." *20th Century Literature* 39 (Fall 1993): 306-27.
- Duffy, Enda. *The Subaltern Ulyss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 Haslett, Moyra. "The girl or woman, or whatever she is...: 'Femininity and Nationalism in Joyce.'" *RE: Joyce: Text, Culture, Politics*. John Brannigan. *et al* Eds. New York: Macmillan, 1998. 45-59.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Harmondsworth: Penguin, 1977.
- _____. *Ulysses*. Hans Walter Gabler *et al* Eds., Harmondsworth: Penguin, 1993.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59.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 Kristeva, Julia. *Revolution in Poetic Langu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MacClintock, Anne. *Imperial Leather: Race, Gender and Sexuality in the Colonial Context*. New York: Routledge, 1995.

- Pearce, Richard ed. *Molly Blooms: A Polylogue on "Penelope" and Cultural Studies*.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4.
- Said, Edward W. "Representing the Colonized: Anthropology's Interlocutors." *Critical Inquiry* 15 (Winter 1989): 205-25.
- Shloss, Carol. "Molly's Resistance to the Union: Marriage and Colonialism in Dublin, 1904." In Pearce. 105-18.
- Valente, Joseph. *James Joyce and the Problem of Justice: Negotiating Sexual and Colonial Diffe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Abstract

“Penelope”: Post-Colonial Representation of Woman’s Sexuality

Moon-Sook Kim

“Penelope” comes after the novel’s main story of seventeen chapters, in which Molly Bloom has been denied her language that could express her sexuality. As only an object of a male gaze, she has looked the way the men have wanted her to look.

Yet in this last chapter she asserts her own desires as an active agent, turns other Irishmen into objects of her gaze, and even argues with her creator in her own language of flow and overflow. Her unpunctuated and unrepressed soliloquy of sexuality functions as a threatening subversive discourse associated with pre-oedipal attachment to the impulses of an imaginary maternal figure. So her discourse can transgress the fixed boundaries of racial/ sexual stereotypes imposed by patriarchy and imperialism.

Molly’s subversive strength stems from her ambiguous identity. Molly mingles sexual and racial differences within herself. So she can never be said to be ‘pure’ both sexually and racially in view of Irish nationalism’s standard. Yet Joyce gives her the last word of *Ulysses*, from which we can infer some of Joyce’s thought of what a postcolonial subject should be like.

Joyce vests Molly, the most abject subaltern subject in the text, with the freedom to express herself. She shows not only the fullest horror of the effects of colonial power but also a sense that out of this abjection might come a consciousness that would lead these colonized people to independent thought and action. For Joyce, “the spiritual liberation” of Ireland and the creation of “the conscience of his race” involved getting out of the ‘fictional’ binary thought of patriarchy and imperialism, 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esent colonial condition, and from that position beginning a new start towards a new community.

■ 주제어: binary thought, border, language, sexuality, postcolonial society, representation (이분법, 경계, 정체성, 언어, 섹슈얼리티, 탈식민 사회, 재현)